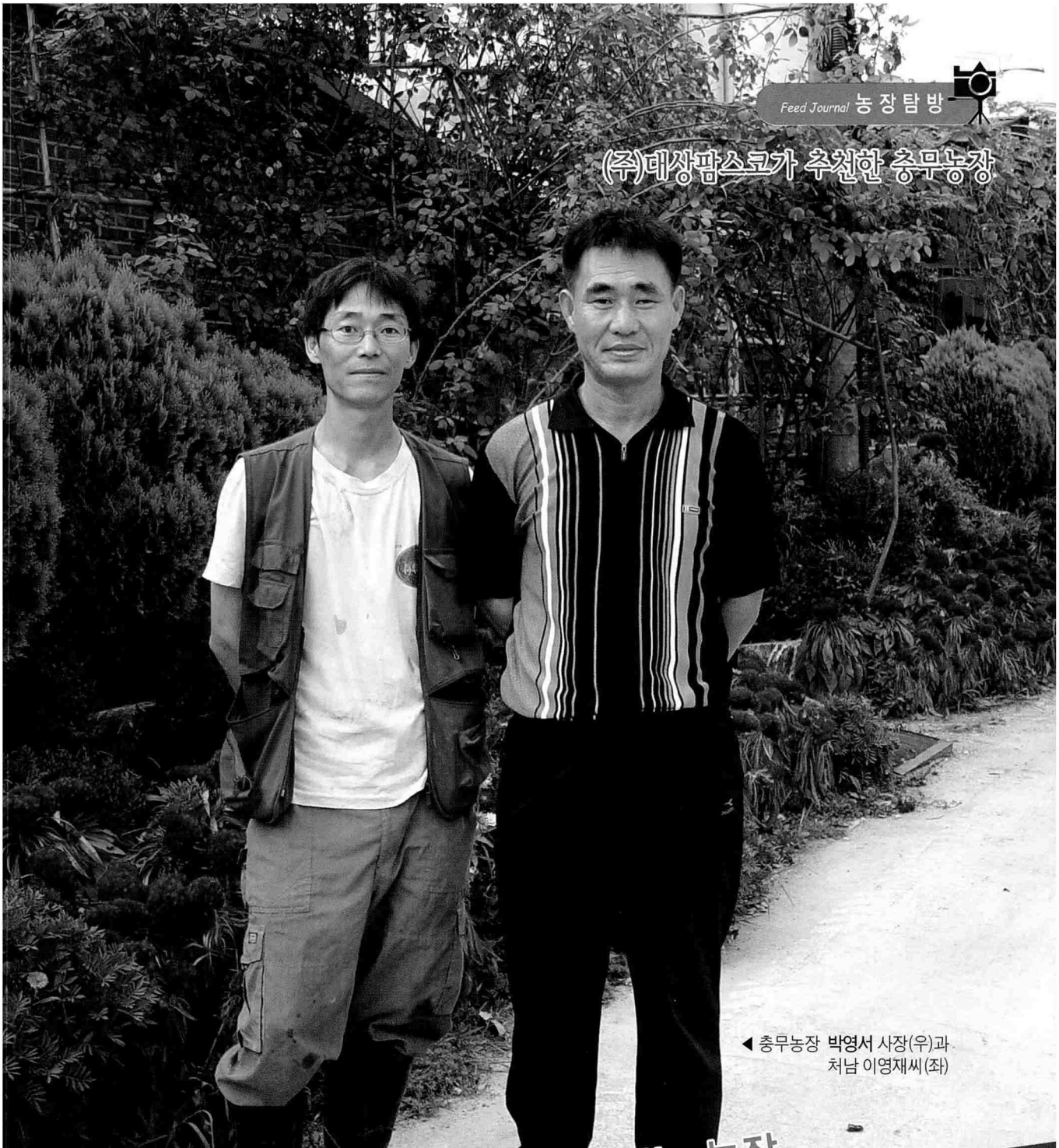
(주)대상팜스코가 추천한 충무농장



◀ 충무농장 **박영서** 사장(우)과 처남 이영재씨(좌)

HACCP 인증으로 일군 경쟁력 있는 농장

"꿀꿀소리에 소득도 쑥쑥"

충남 천안시 병천면 충무농장

〉〉〉 [취재 _ 현시영]

▲ (오른쪽부터)대상팜스코 황인용 부장, 박영서 사장, 곽호일 과장

가을인데도 늦여름의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구불진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남 천안시 병천면 관석리에 위치한 박영서(46)사장의 충무농장.

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은 아니지만 돈사 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박영서 사장의 예쁜 집이 한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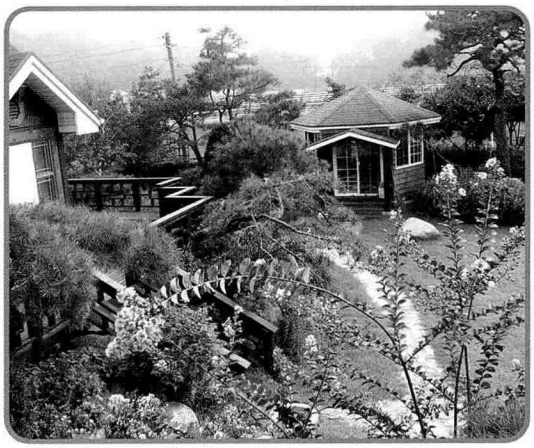
비육사2, 육성사1, 분만사1, 자돈사3, 교배사와 후보사를 두고 모돈 500두를 포함해 총 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충무농장은 우리나라에서 9번째, 충청남북도를 통틀어 최초의 HACCP 인증이라는 것과 거래하고 있는 대상팜스코에서도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 1호라는게 큰 자랑이라고 함께 동행한 황인용 부장이 살짝 귀띔했다.

아니나 다를까. 농장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돈분발효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이 돈분발효장은 98년도에 설치되어 아침,저녁으로 3번씩 관리를 한다고 한다. 톱밥과 돈분을 교반기로 이틀에 한번씩 뒤집어 준다. 잘 발효된 돈분은 충무농장의 쏠쏠한 부수입이 된다. 박영서 사장의 처남인 이영재씨는 우스갯소리로 "돈 되는건 이것밖에 없다"고 할정도.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발효장을 설치만 해 놓고 관리소홀로 인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게 대부분이라고 박 사장은 말한다. 53m나 되는 길이를 관리하는 데만 5시간이 걸리고 또한 돈분을 넣으면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부지런하고 참을성 있는 농장주가 아니고서는 힘에 부칠것 같았다.

또한 분뇨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여 여과된 액비를 이용해 하루에 두 번씩 돈사청소를 한다. 액비는 방류해도 문제 없을 만큼 정화한 후 하루 2톤 정도는 방류를 하고 있다.



▲ 아기자기한 조경이 인상적인 박영서 사장의 집

바쁜 농장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박 사장의 오른팔은 여덟 개나 된다. 충무농장의 직원은 총 여덟명. 직원들 모두 농장일에 여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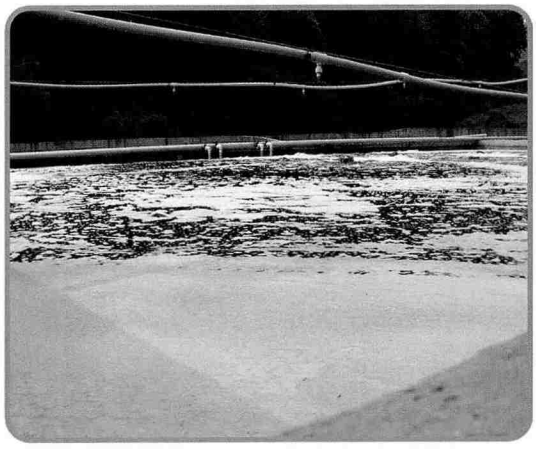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관심이 많다. '항상 내 농장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직원들과 질병이나 농장관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직원관리에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인다는 박 사장은 직원 자녀의 학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는 꼭 일어나서 농장을 둘러본다는 박영서(46)사장의 돈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는 천안농고 식품위생과로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온양에서 양계 500마리로 시작했다고 한다. 군 제대후 86년도에 다시 시작해 모돈 5마리를 키우며 양돈은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온양에서 모돈을 100마리까지 늘리고, IMF가 터졌을때, 당시 150두 규모의 현재 농장을 구입했다. 4년 전에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농장을 짓고 모돈을 500여두까지 늘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 외에 시련은 있었다. 2년 전 양돈농가에 치명적인 흉막폐렴으로 인해 폐사율이 많았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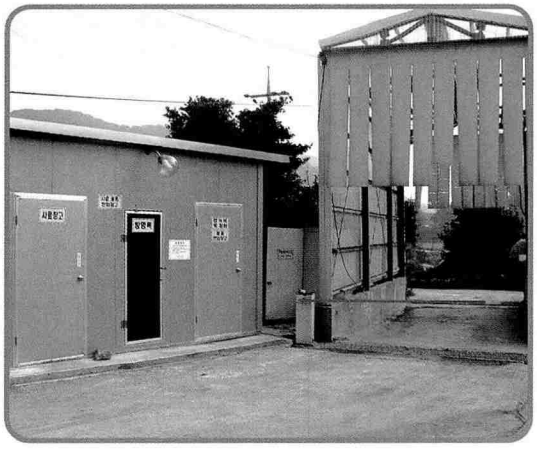
"흉막폐렴은 사료를 충분히 섭취한 70kg대의 돼지가 폐사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요. 그것도 최고 좋은 돼지가 죽어 많이 속상했죠. 그때 대한민국 박사는 거의 우리농장을 다녀갔을 정도였어요." 라고 박 사장은 말했다. 그 당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농장 자체에 면역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박 사장이다. 다행히 흉막폐렴은 백신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 농장입구에 설치된 돈분발효장



▲ 정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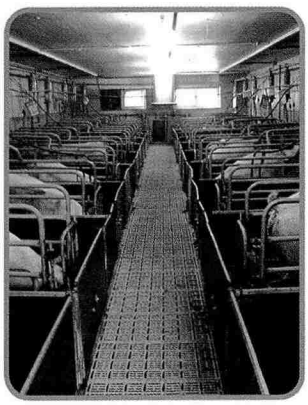
▲ 대상팜스코의 사료


▲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 시설

충무농장은 대상팜스코의 사료를 쓴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되어간다. 박 사장은 대상사료를 쓰고 난 후부터 출하일령이 앞당겨 졌고 출하체중은 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돈군을 늘리는데 대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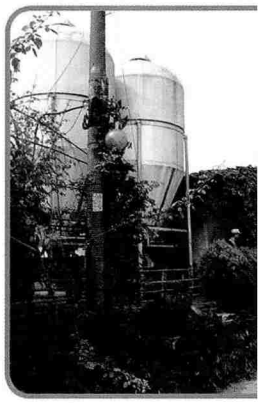
함께 동행한 황인용 부장은 대상팜스코가 다른 사료회사와 다른 점으로 종돈공급, 사료공급, 출하까지 통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장 쪽에서 보면 사료만 파는 다른 회사와 달리 농장 경영이 수월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양돈농가의 MSY는 13두 정도로 열악하다는 말은 전해들은 기자는 충무농장의 MSY를 물었다. 충무농장은 MSY 18두 정도로 우수한 농장이지만 박 사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전 200두 정도를 사육할 당시에는 MSY가 22두까지 나왔고 폐사하는 자돈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게 사실. 박 사장은 현재 돈군에서 1만두까지 늘리고 내년엔 MSY도 20두까지는 늘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 깔끔한 모돈사

▲ 비육사

▲ 사료 벌크


▲ 돈사 앞 화단